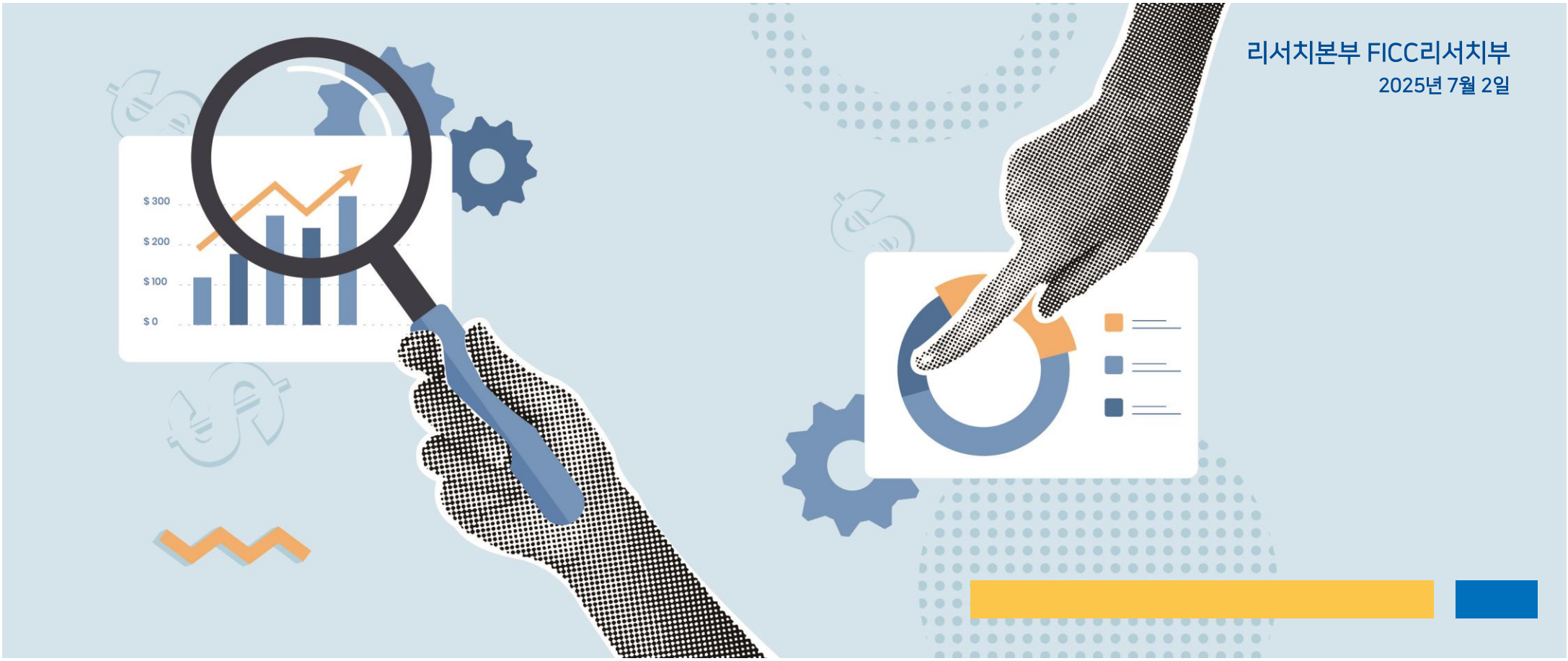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부
2025년 7월 2일

해외 크레딧 인사이트

(강등)위기를 (매수)기회로

김준수 (해외 크레딧, 02)768-7784, junsoo.kim@nhqv.com)
이세현 (크레딧 RA, 02)768-7735, sehyun.lee@nhqv.com)

NH투자증권

C/O/N/T/E/N/T/S

Summary 3

I. 해외 크레딧 6월 동향 및 투자 성과 5

II. 해외 크레딧 7월 전망 및 이슈 13

III. Appendix 29

Summary

(강등)위기를 (매수)기회로

I. 해외 크레딧 6월 동향 및 투자 성과

- 6월 해외 크레딧 투자 성과는 Bloomberg 글로벌 크레딧 인덱스 기준 2.3%를 기록하는 등 양호했음
-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산 및 해소 등으로 금융시장이 리스크 온-오프를 오가며 전월대비 국채금리 하락과 신용 스프레드 축소가 동시에 나타난 영향
- 미국 크레딧은 투자등급 중심의 양호한 성과. 경기 지표에 힘입어 하이일드 역시 스프레드 축소세 시현
- 유럽 크레딧도 기준금리 인하와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스프레드 축소. 다만 방위비 증가 결정에 분트채 금리 상승하며 성과는 보합

II. 해외 크레딧 7월 전망 및 이슈

- **7월 이후 해외 크레딧 시장은 시장은 관세 유예 연장, 감세법안, 부채한도 협상, 2분기 기업 어닝 등 산재된 이벤트에 대한 경계 나타날 것으로 판단**
- 반기 초를 맞아 신규 자금 유입 및 신규 발행 등 계절적인 수급 여건도 경계감에 따라서 예년 대비 다소 주춤할 가능성. 관세 리스크 크게 확산 되었던 4월 이후 신용 스프레드 축소 랠리 지속해온 만큼 레벨 부담 역시 상존해 전월대비 소폭 확대 반전 예상됨
- 지난해부터 업황 둔화, 인플레, 고금리 압력과 더불어 개별 기업 이슈 등으로 일부 기업들은 신용등급 및 전망 하락. 신평사 레이팅 액션에 따라서 발행 기업들의 유통 채권의 가격 역시 동반 하락했음
- **다만 향후 재무 구조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의 크레딧물은 저가 매수 접근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판단됨. 작년 8월에도 당사는 기체결함 이슈로 하이일드 강등 위기에 놓인 보잉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매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지난달에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BB+/W Neg), 닛산(BB/N) 등의 신용등급 조정이 주목할 만한 이슈. 양사 모두 업황 부진한 가운데 사업부문 매각과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2026년까지 정상화를 목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해외 크레딧 인사이트

(강등)위기를 (매수)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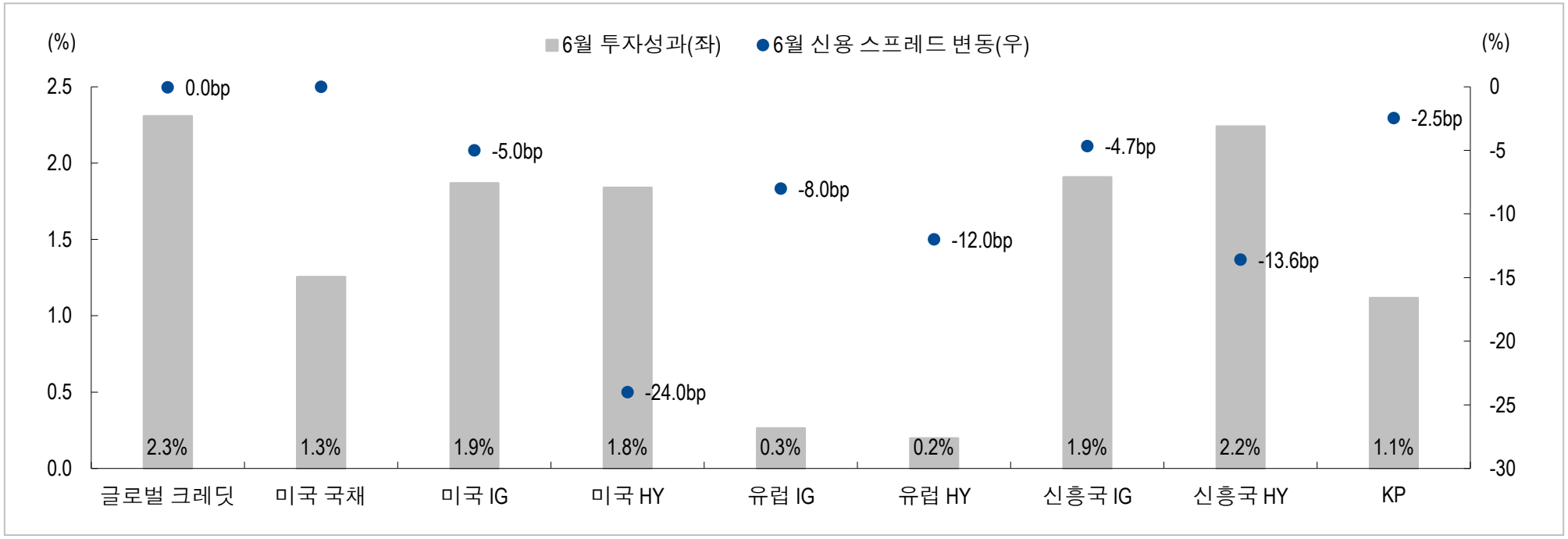
I. 해외 크레딧 6월 동향 및 투자 성과

김준수(해외 크레딧)
Tel 02) 768-7784 | **e-mail** junsoo.kim@nhqv.com

투자 성과: 금리 하락에 더해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되며 전 영역 양의 성과

- 6월 Bloomberg 글로벌 크레딧 인덱스 월간 투자 성과는 2.3% 기록
- 미국 크레딧 시장은 양호한 경기 지표에 힘입어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제한적. 특히 하이일드 중심으로 스프레드 축소세 시현하며 양의 성과
- 유럽 크레딧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스프레드 축소. 다만 방위비 증가 결정에 분트채 금리 상승하며 성과는 보합

해외 크레딧 투자 성과와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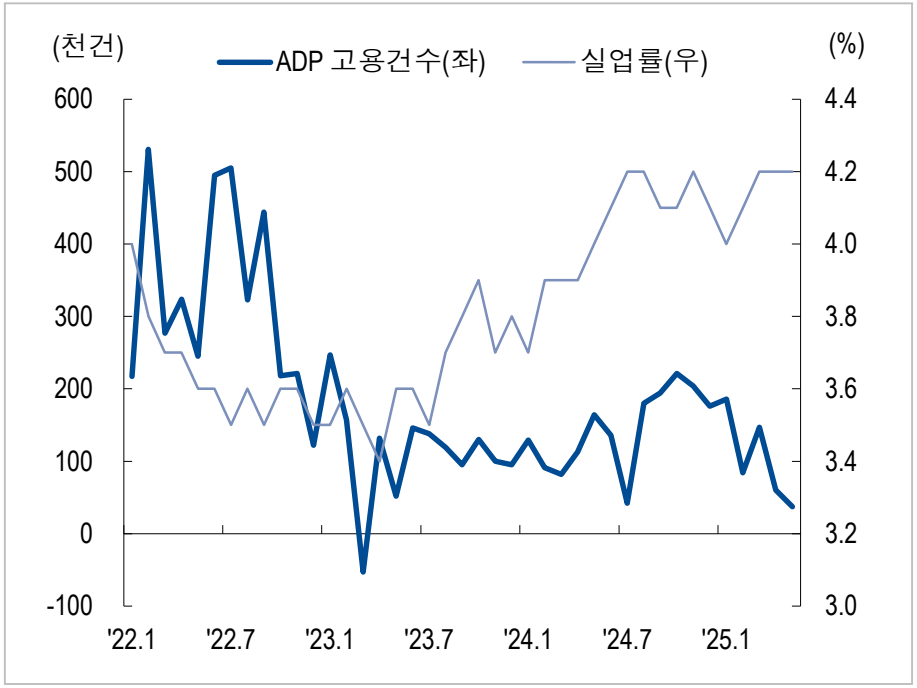


주: 투자 성과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TR 인덱스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동향: 월초 불거졌던 경기 우려는 견조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확인하며 소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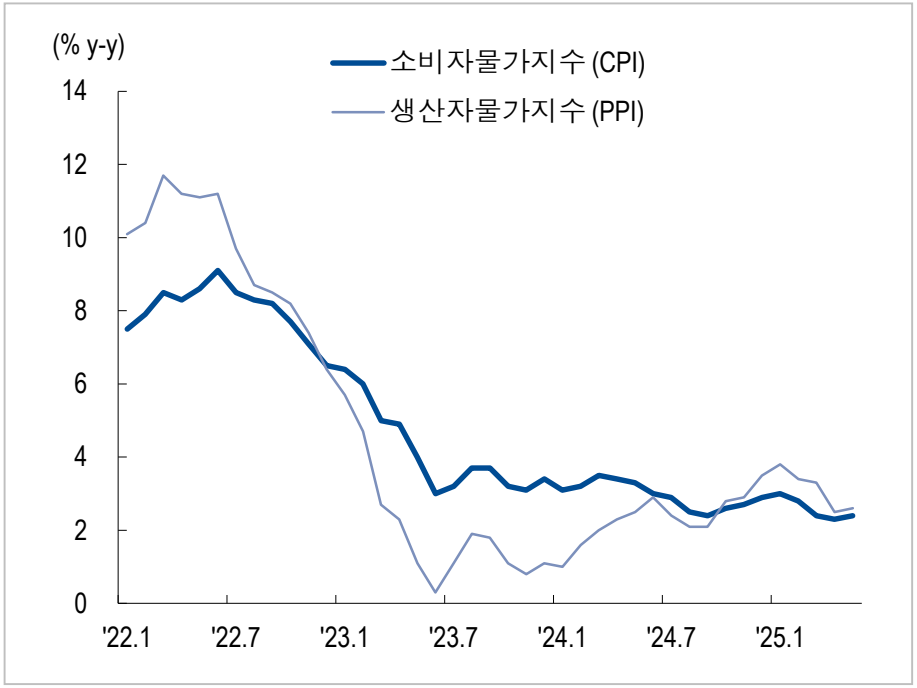
- 월초 5월 ADP 고용자 수는 3.7만명 증가해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 이에 시장의 이목은 5월 고용보고서의 실업률에 집중
- 우려와 달리 5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13.9만명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하며 여전히 견조한 경기를 시사
- 이에 더해 5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도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집계되며 물가 압력 완화 기조 지속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경기를 시사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물가 우려도 단기적으로 소강 상태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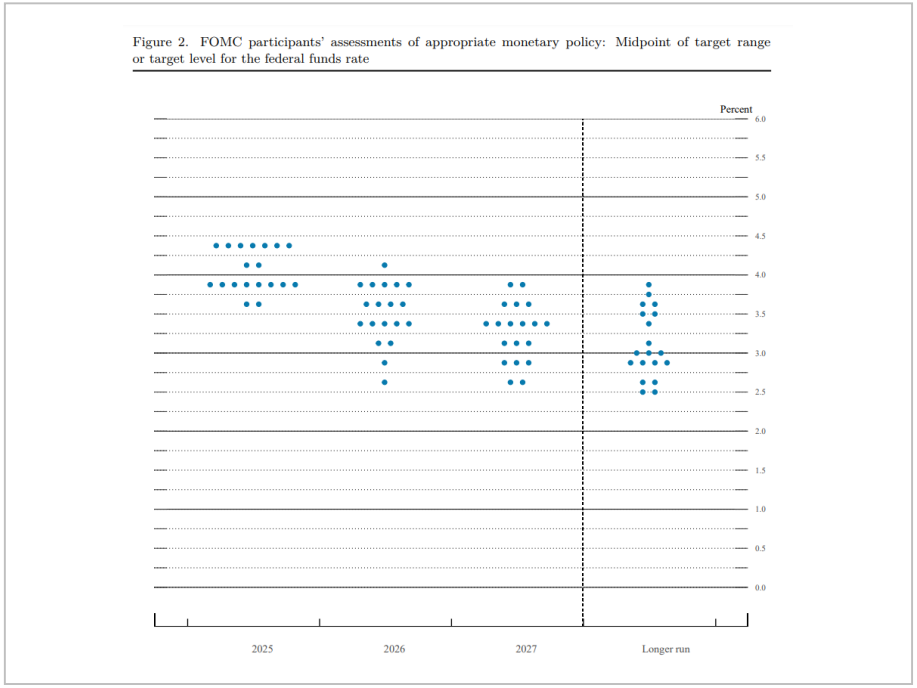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6월 FOMC, 경제지표도 둔화세 이어가는 모습

- 6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4.50%에서 동결 결정. 매파 가능성을 점쳤던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
- 파월 의장은 관세발 물가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일부 총재들은 고용 약화 이전 금리 인하 필요성을 견지
-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역성장 국면인 데에 더해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역시 잠정치를 하회하며 경제 지표는 둔화세를 이어가는 모습

6월 FOMC 점도표



자료: FED,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1분기 GDP 확정치는 잠정치를 하회하며 지표 둔화세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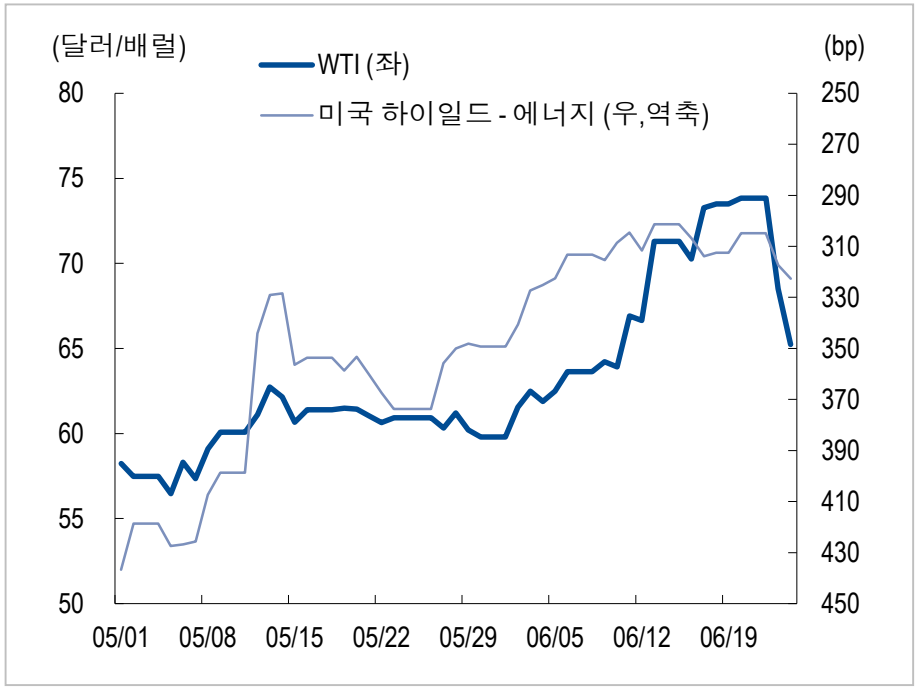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의 개입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 제한됨

- 월 중순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시장 전반에 불안 심리 확산되며 유가 상승, 채권 금리 하락 전개
- 크레딧 스프레드 상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으나 장중 배럴당 73달러까지 상승했던 원유 가격에 연동해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짐
- 다만 미국이 2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던 당초 입장을 번복, 핵 시설을 공습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의 추가 전이는 제한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에너지 섹터의 스프레드는 유가와 연동해 등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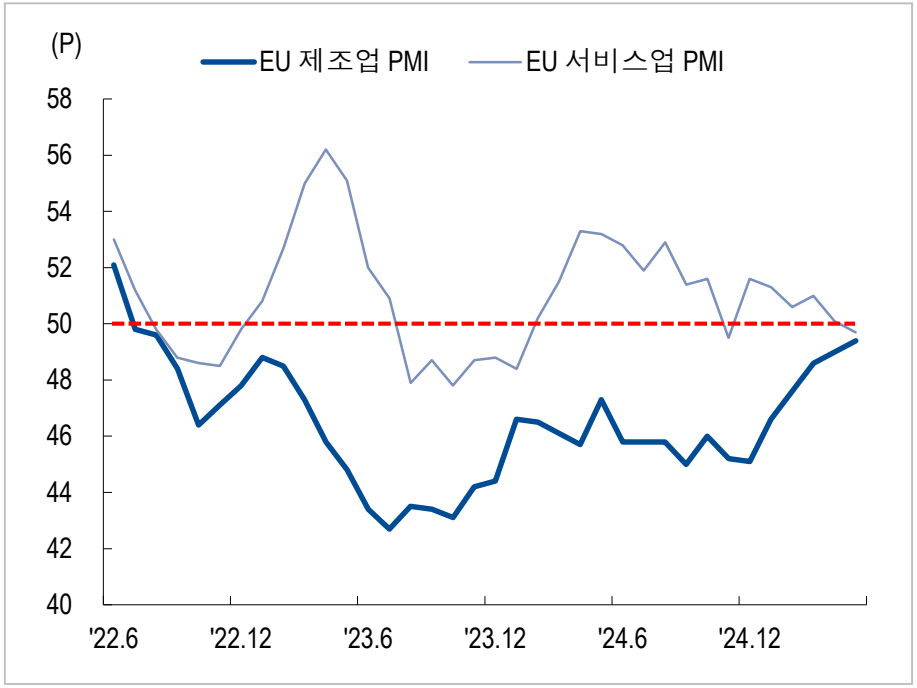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유럽: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회복 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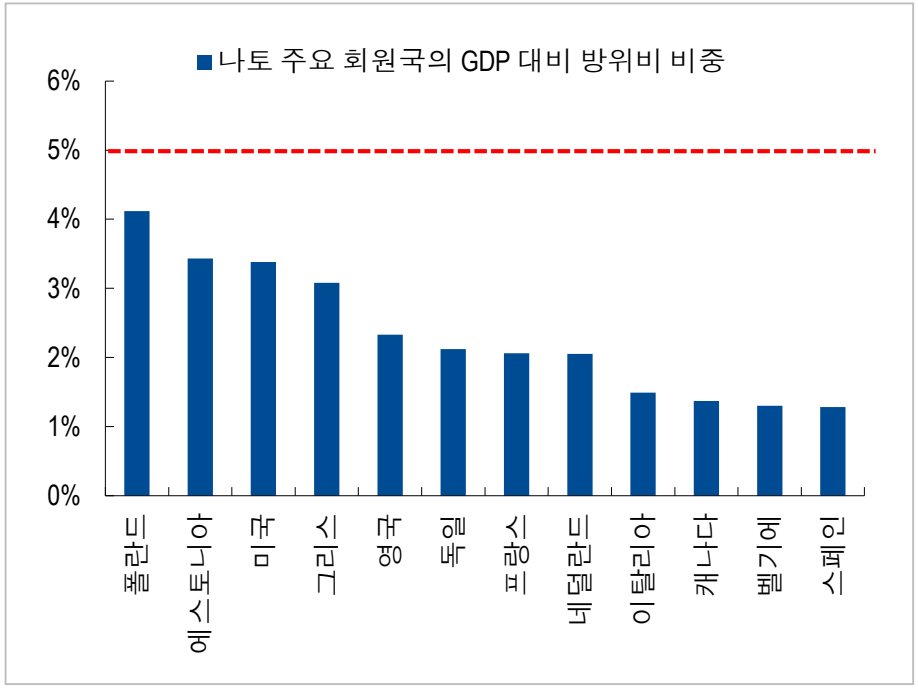
- ECB는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25bp 인하한 2%로 설정.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왔던 만큼 금리는 보합 흐름
- EU 서비스업 PMI와 달리 제조업 PMI는 여전히 위축국면이나 확연한 개선세. 스프레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발 약세 폭을 되돌리며 강보합 마감
- 한편 NATO 회원국들은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 국채 발행 부담에 대한 우려 확산되며 국채 금리 소폭 상승

EU 서비스업 PMI와 달리 제조업 PMI는 확연히 개선세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방위비 투입 증가는 국채 발행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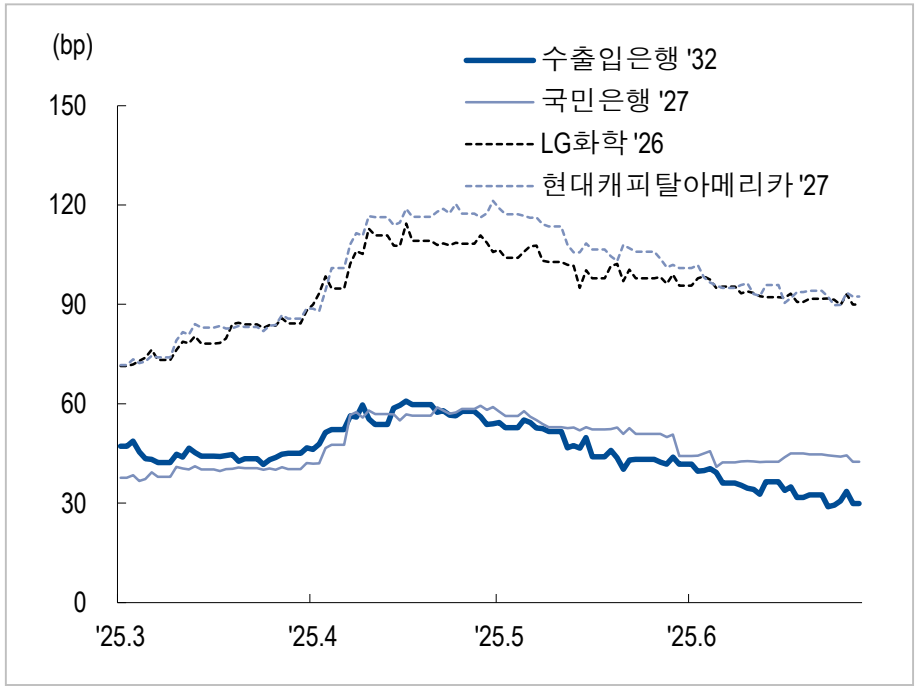


자료: NATO,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KP: 6월에도 견조한 글로벌 수요 속 원활한 자금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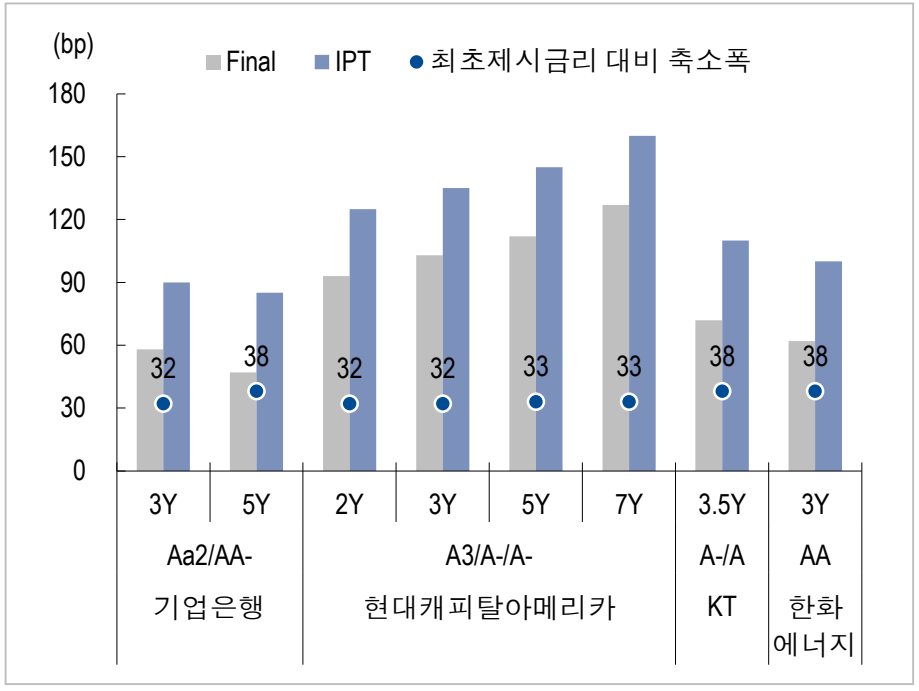
- 4월 관세 불확실성으로 확대되었던 주요 KP물 스프레드는 관세 협상이 진행되며 하향 안정화 이어가는 모습
- 6월에도 주요 KP 발행 기업들의 활발한 자금 모집 이어졌으며 최초제시금리 대비 축소된 수준에서 금리 결정되며 수요예측 결과도 우호적

주요 KP물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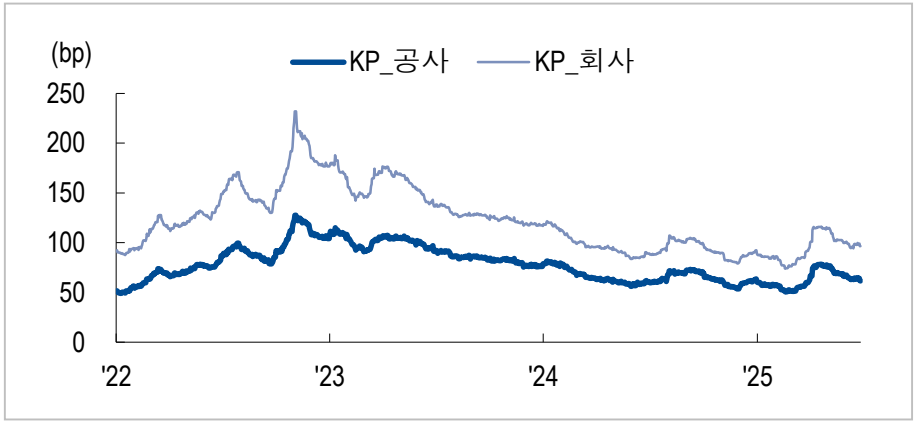
6월 수요예측도 최초제시금리 대비 낮은 수준에서 금리 결정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KP Monitoring

주요 KP물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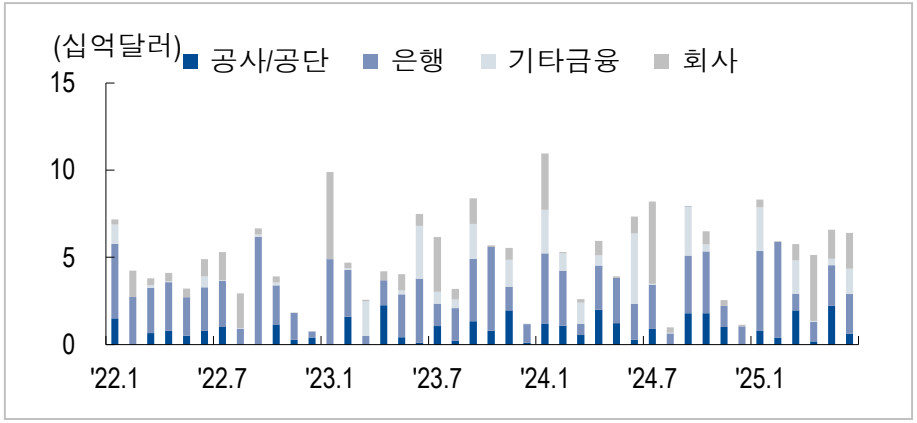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6월 주요 KP 발행물 리스트

발행일	발행기관	표시 통화	발행잔액 (백만달러)	금리 (%)	만기
6.16	LG화학	USD	1,000	1.75	3Y
6.24	한화생명보험(후)	USD	1,000	6.30	30Y
6.26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EUR	700	2.88	3Y
6.26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EUR	700	3.50	7Y
6.24	IBK기업은행	USD	500	4.37	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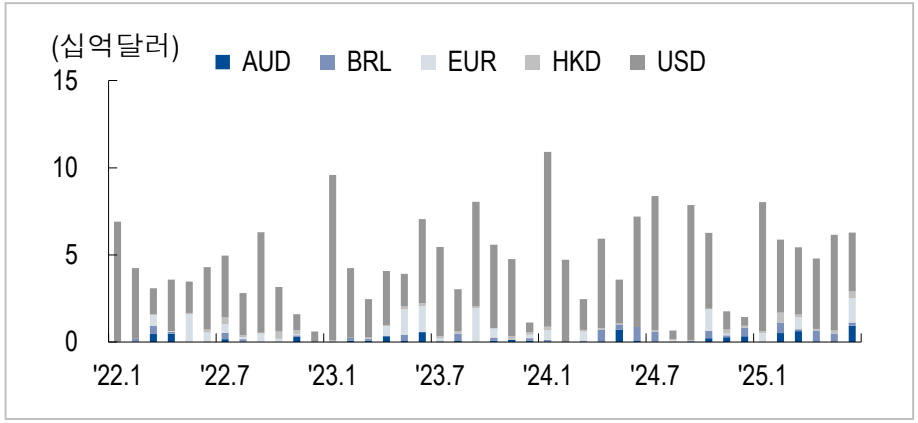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발행 주체별 발행잔액 추이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발행 통화별 발행잔액 추이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강등)위기를 (매수)기회로

II. 해외 크레딧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김준수(해외 크레딧)
Tel 02) 768-7784 | e-mail junsoo.kim@nhqv.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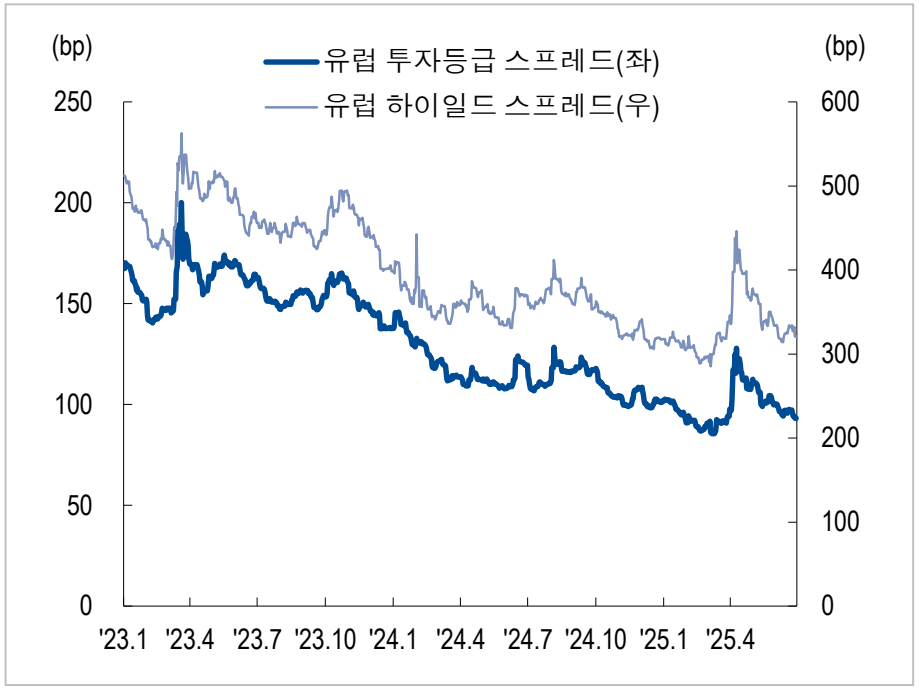
전망: 산재된 이벤트, 변동성 장세 속 전월대비 약보합 전망

- 7월 이후 해외 크레딧 시장은 관세 유예 연장, 감세법안, 부채한도 협상, 2분기 기업 어닝 등 산재된 이벤트에 대한 경계 나타날 것으로 판단
- 반기 초를 맞아 신규 자금 유입 및 신규 발행 등 계절적인 수급 여건도 경계감에 따라서 예년 대비 다소 주춤할 가능성
- 관세 리스크 크게 확산 되었던 4월 이후 신용 스프레드 축소 랠리 지속해온 만큼 레벨 부담 역시 상존해 전월대비 소폭 확대 반전 예상됨

미국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유럽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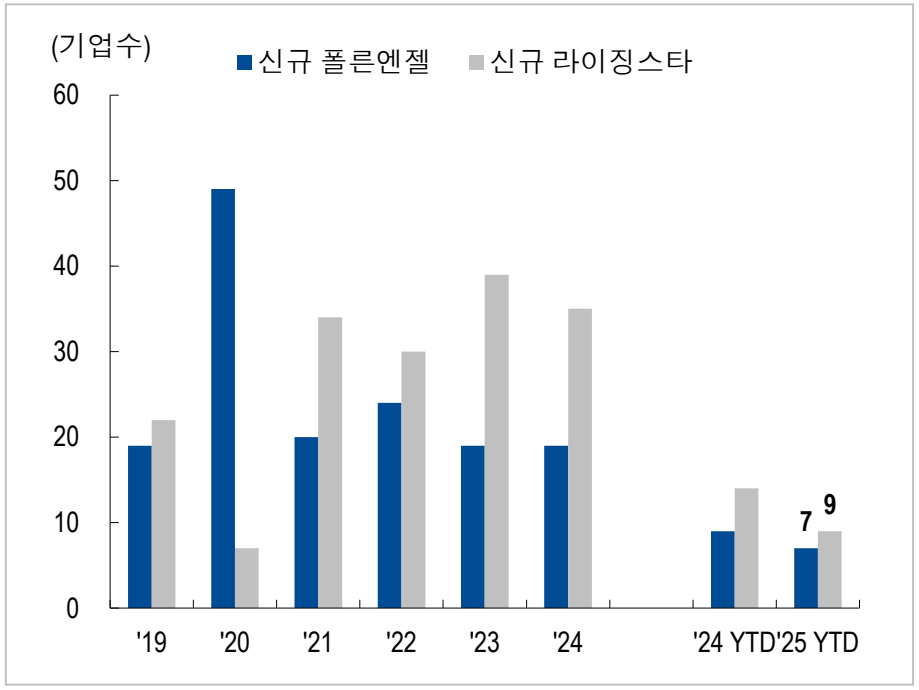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슈(1): (강등)위기를 (매수)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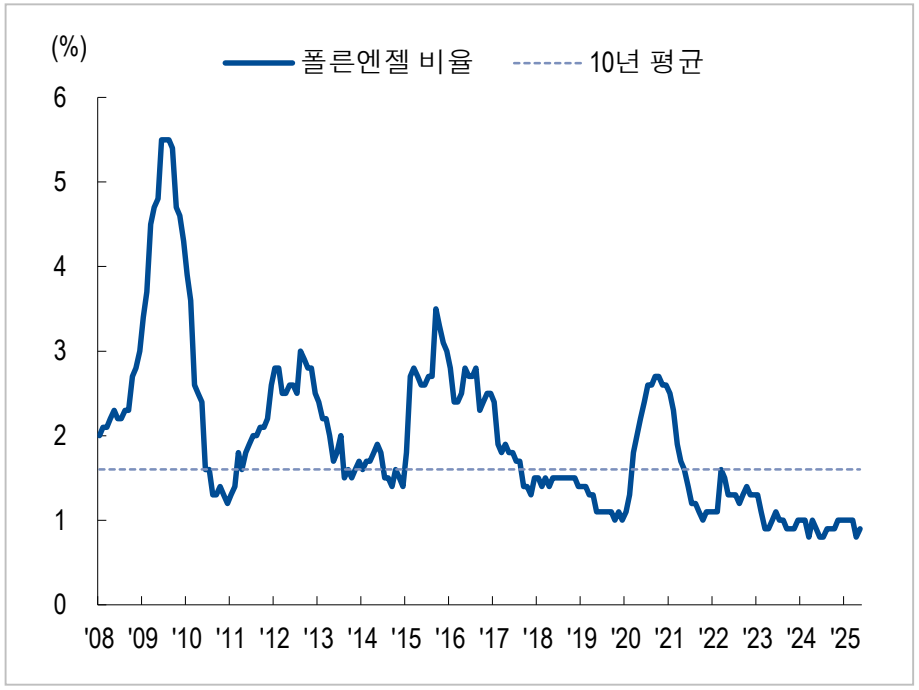
- 지난해부터 업황 둔화, 인플레, 고금리 압력과 더불어 개별 기업 이슈 등으로 일부 기업들은 신용등급 및 전망 하락
- 신평사 레이팅 액션에 따라서 발행 기업들의 유통 채권의 가격 역시 동반 하락했음
- S&P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가운데 올해 연초 이후 하이일드로 강등된 폴른엔젤은 7개, 투자등급으로 상향된 라이징 스타는 9개로, 관세 리스크 및 업황 둔화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폴른엔젤 기업들이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신규 폴른엔젤과 라이징스타 기업수 추이



자료: S&P,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등급 내 폴른엔젤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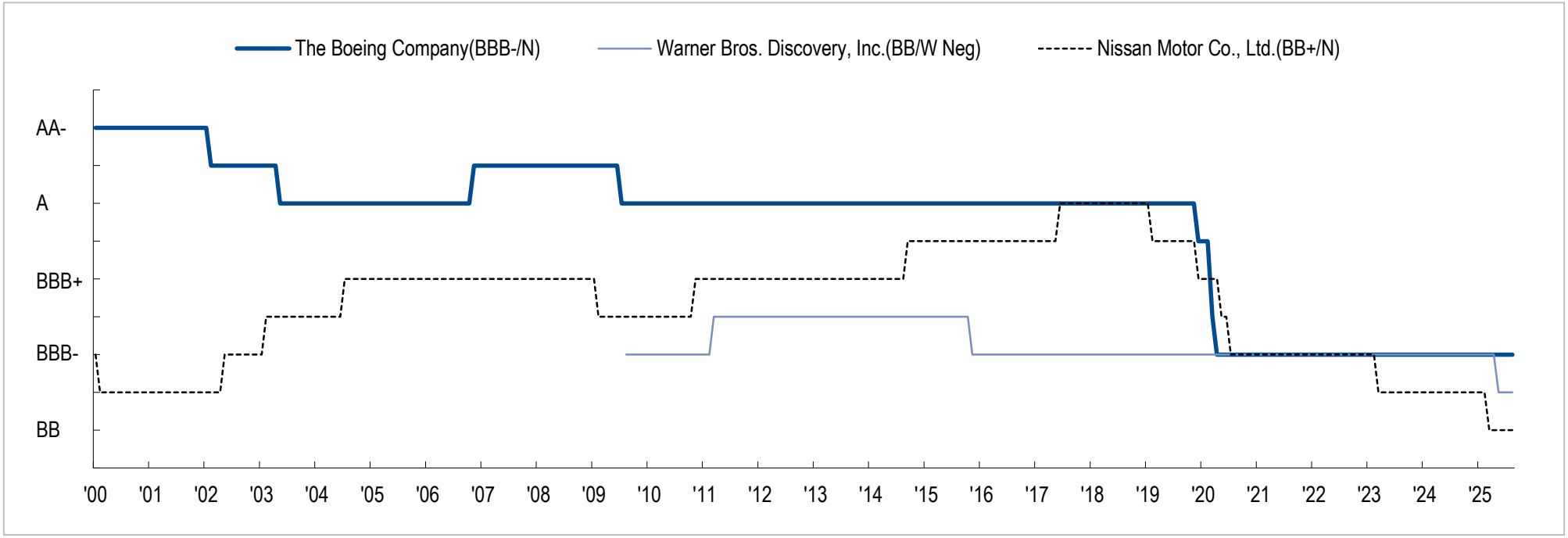


자료: S&P,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재무 구조 개선 가능성 보이는 기업의 크레딧물, 저가 매수로 접근

- **다만 향후 재무 구조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의 크레딧물은 저가 매수 접근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판단됨**
- 작년 8월, 당사는 기체결함 이슈로 하이일드 강등 위기에 놓인 보잉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매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지난달에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닛산 등의 신용등급 조정이 주목할 만한 이슈였음

보잉,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닛산의 S&P 신용등급 추이



자료: S&P,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BB+/W Neg): 하나에서 다시 둘로

- TV, 영화, 스트리밍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가 6월 9일 분사 계획을 발표
- 2022년 AT&T의 워너미디어 사업부와 디스커버리 미디어의 합병으로 출범하였으나, 설립 3년 만에 분할 결정
- 전통 케이블 TV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동시에 OTT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입지 약화되며 회사의 영업적자가 지속됨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 분사 계획 발표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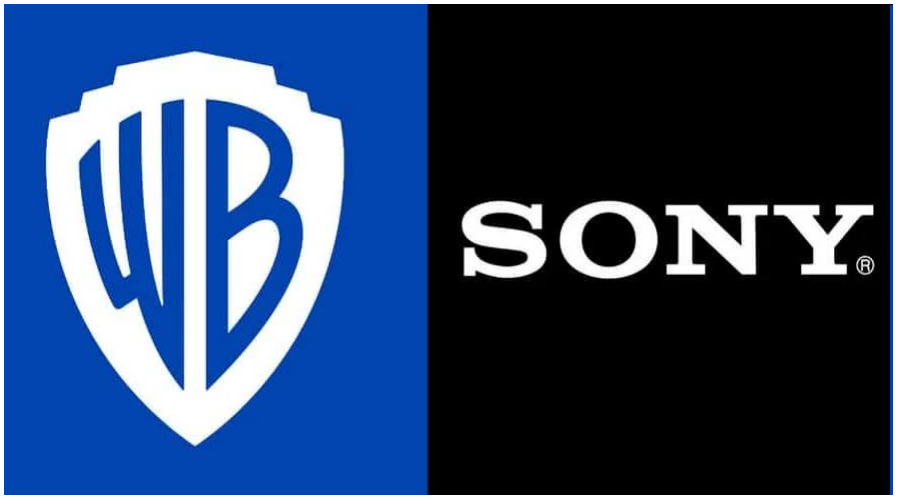
WBD의 사업부문별 자회사

자료: Warner Bro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스트리밍 & 스튜디오 자산 매각, 잔존 부채는 네트워크에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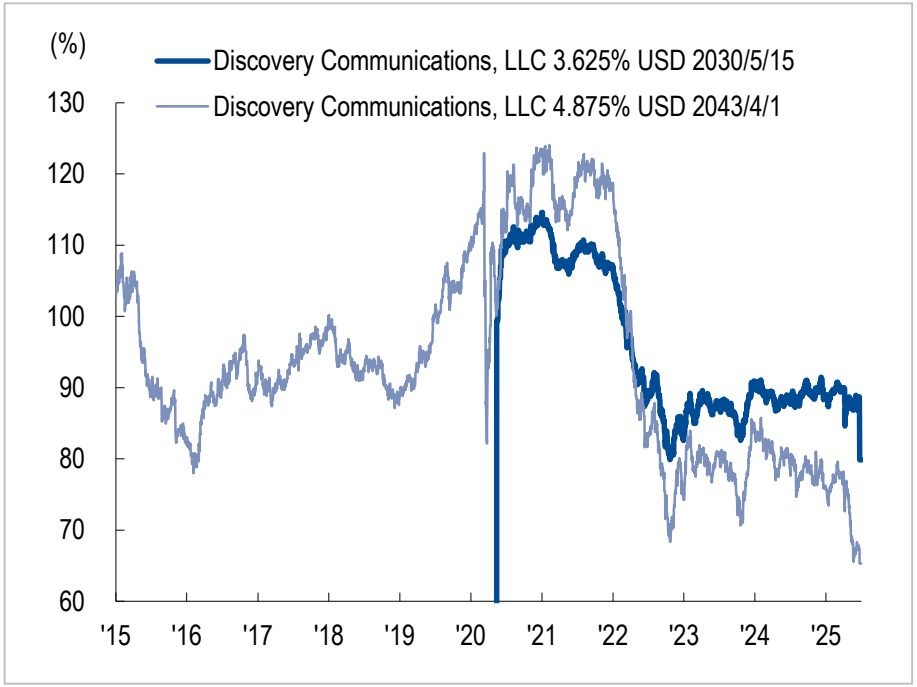
- 회사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이하 S&S) 사업부문은 분할 상장 예정이며, 유선 TV 사업부문인 글로벌 네트워크(이하 GN)이 S&S 지분 20%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발표됨
- 회사의 분사는 2026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소니가 S&S 사업부문의 자산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향후 IP 관련 반독점 이슈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에 우호적인만큼 M&A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약 355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WBD GN에 귀속될 예정. 현재 채권 가격에서는 분리 이후 자본 구조 및 재무 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됨

소니, 스트리밍, 스튜디오 사업부문 유력한 인수 후보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재무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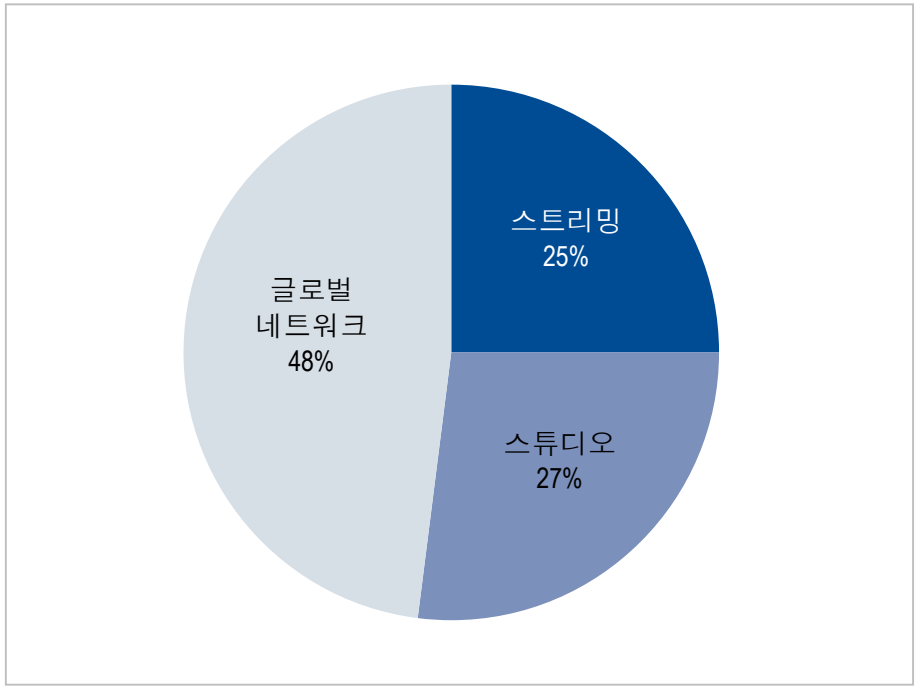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사업부문 매각으로 포트폴리오 축소 불가피하나, 현금흐름 훼손 정도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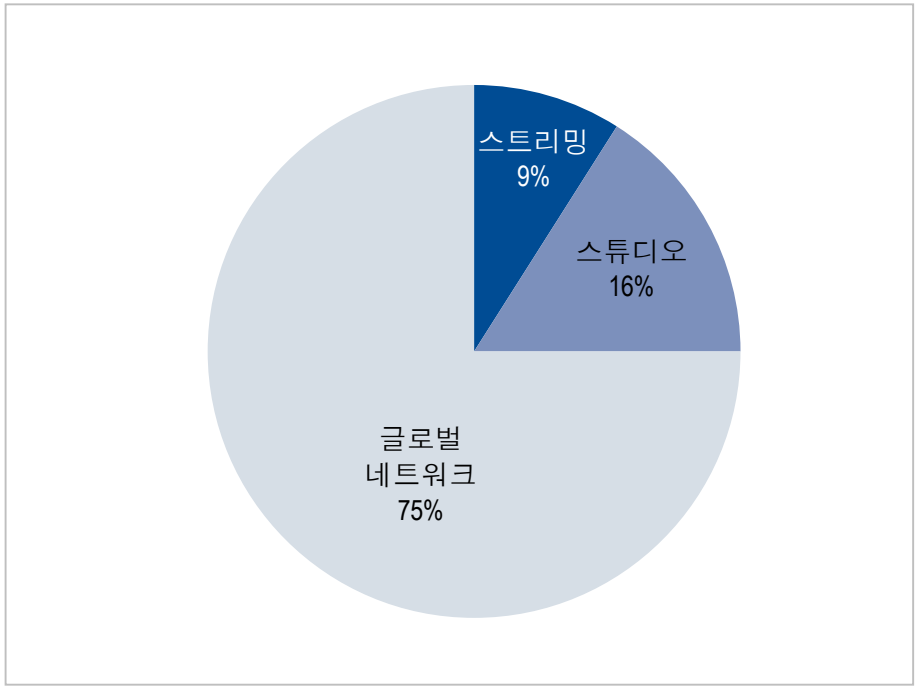
- 회사의 분사 계획 발표 이후 S&P는 신용등급 하향 검토(Watch Neg), 무디스는 Baa3에서 Ba1으로 강등 이후 추가적인 하향 검토(Review for downgrade)의견을 부여해 향후 6개월 이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고
- 분사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정도가 축소되고, 매출액 및 현금흐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
- 그러나 현금흐름의 대부분은 GN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어 영업이익 축소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S&S 사업 부문은 매출 기여도가 약 50% 이상이나 실질 영업이익은 기여도는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사업 부문별 매출액 기여도



주: 1Q25 LTM 기준
자료: Warner Bro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사업 부문별 EBTIDA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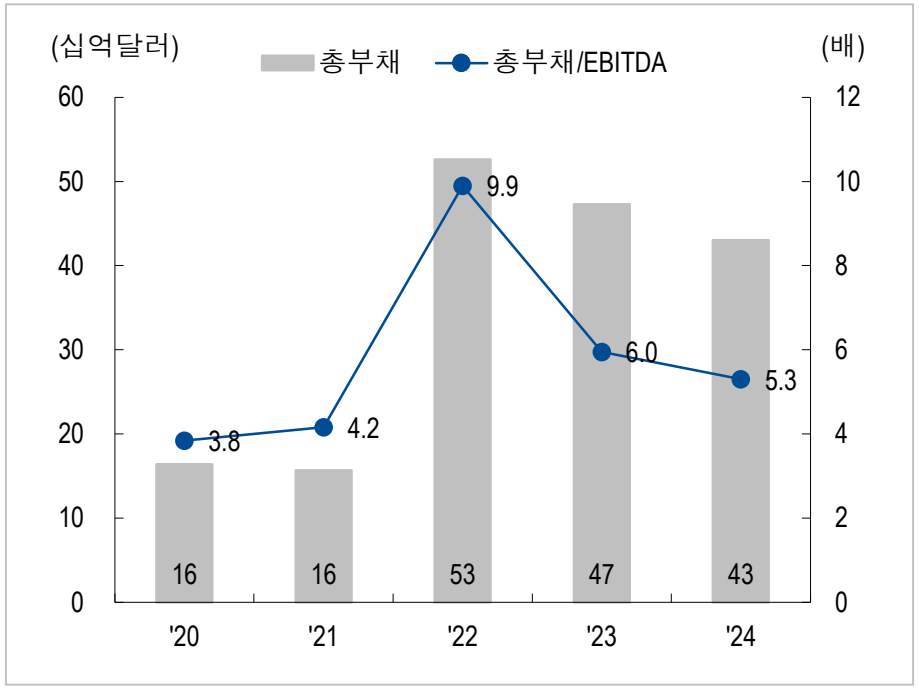


주: 1Q25 LTM 기준
자료: Warner Bro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강도 재무 구조 개선과 부채 감축으로 레버리지 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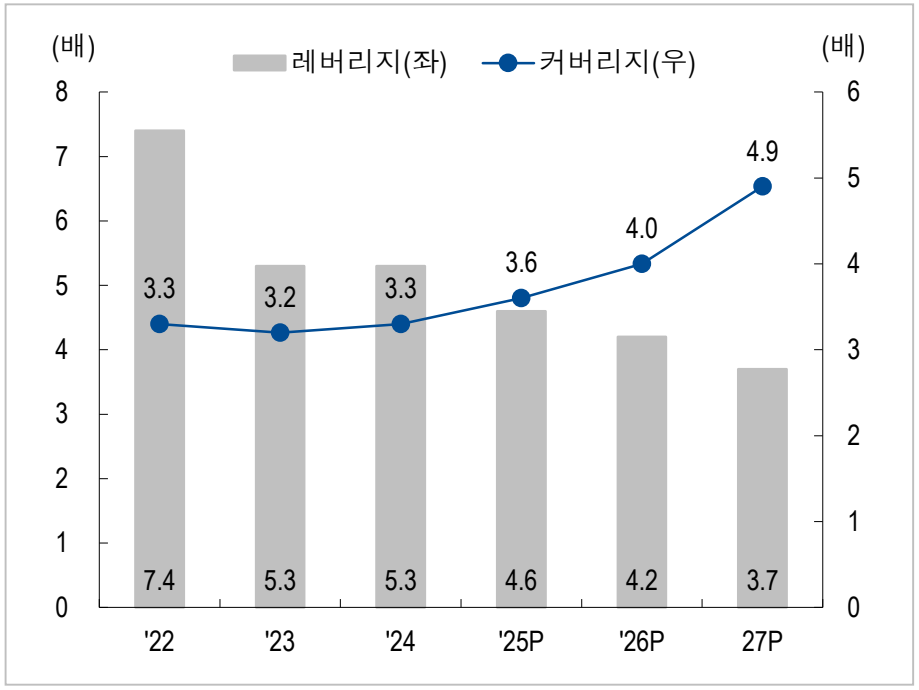
- 1) 불투명한 업황 전망, 2) S&S 지분의 매각 대금 규모, 3) 부채 감축 시점 등 내재된 불확실성이 잔존하나, 대부분의 이슈들이 채권 가격에 이미 반영 되었다고 판단됨
- 회사는 기발행 회사채 공개 매수를 위해 담보부 브리지론으로 17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S&S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 또한 부채 감축에 사용 될 예정

워너브라더스 총부채와 레버리지(총부채/EBITDA) 배율 추이



자료: S&P Capital IQ,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WBD의 신용 지표(레버리지, 커버리지) 추이 및 전망



주: 2025년 이후 전망치는 Moody's 의 전망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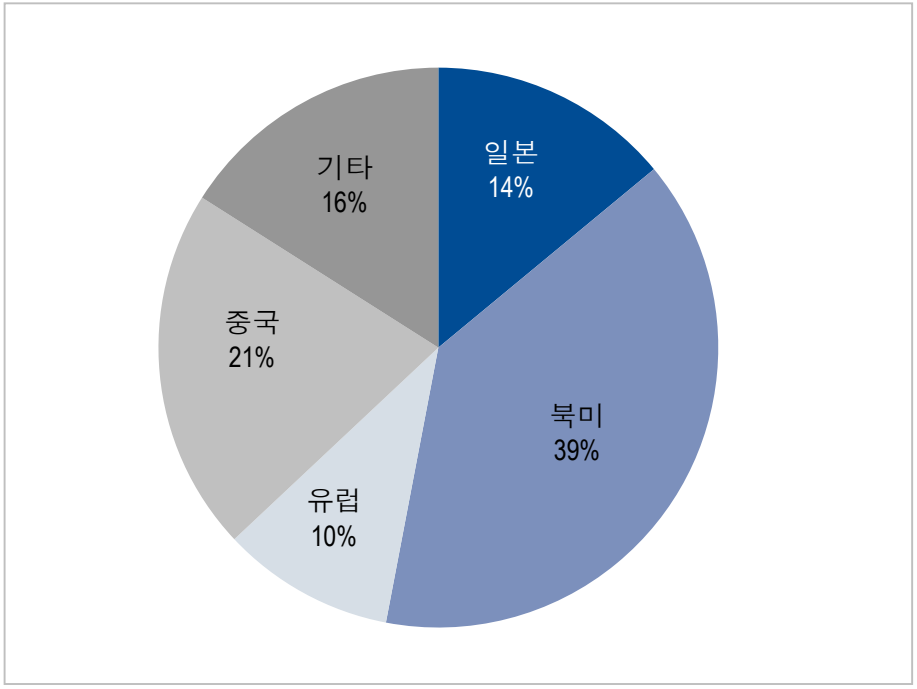
닛산(BB/N): 업황 부진 속 경영난, 탈출구 모색 중

- 일본의 대표적인 완성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닛산도 올해 S&P(2월), 무디스(6월)로부터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되었음
-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약진과 미국의 소비 여력 둔화에 따라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 특히 닛산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과 중국향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금과 같은 업황에 취약한 포트폴리오를 보유
- 리프 등 2026년형 신규 전기차 모델이 발표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 경쟁사 대비 가격 메리트 등으로 판매량 회복은 아직 미지수

닛산의 대표 양산형 전기차, 3세대 리프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닛산의 권역별 차량 판매 비중(판매대수 기준)



자료: Nissa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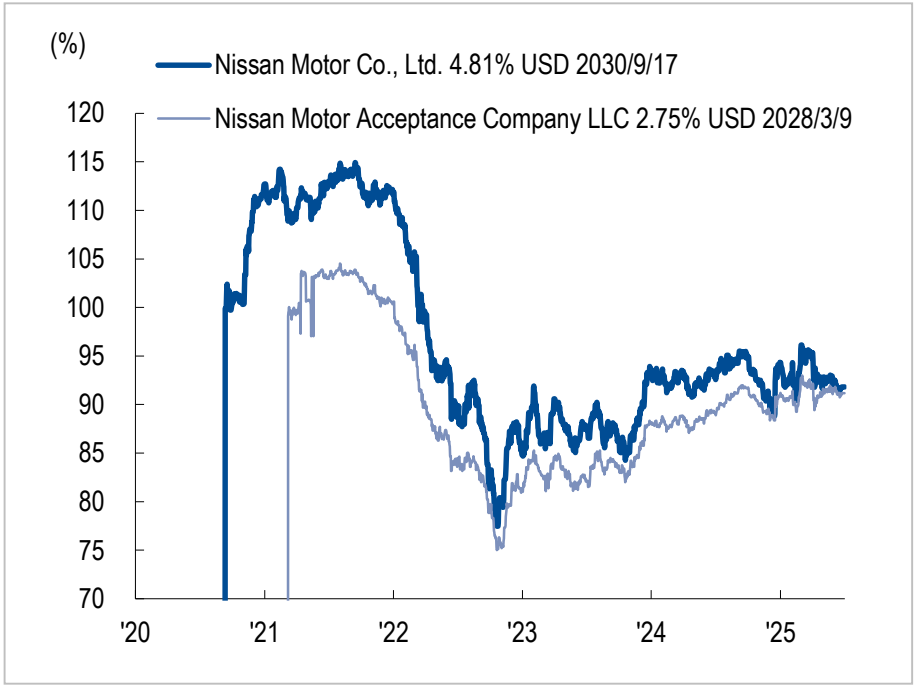
혼다와 합병 결렬, 2026년까지 대대적인 구조조정

- 회사와 혼다간 M&A 논의가 있었으나, 양사간 견해 차이로 올해 초에 결렬. 닛산은 동등한 통합을 원했으나, 혼다측은 자회사 편입을 요구
- 이후 'Re: Nissan'이라는 슬로건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대규모 적자와 글로벌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
- 2026년까지 약 5,000억 엔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전체 직원의 15%인 2만 명 감원, 생산공장 17개에서 10개로 축소 등을 예고
-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2026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등급 하락과 M&A 무산에도 유통물 가격의 낙폭은 다소 제한됨

양사의 견해 차이로 결렬된 닛산-혼다의 인수합병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닛산의 주요 발행 회사채 유통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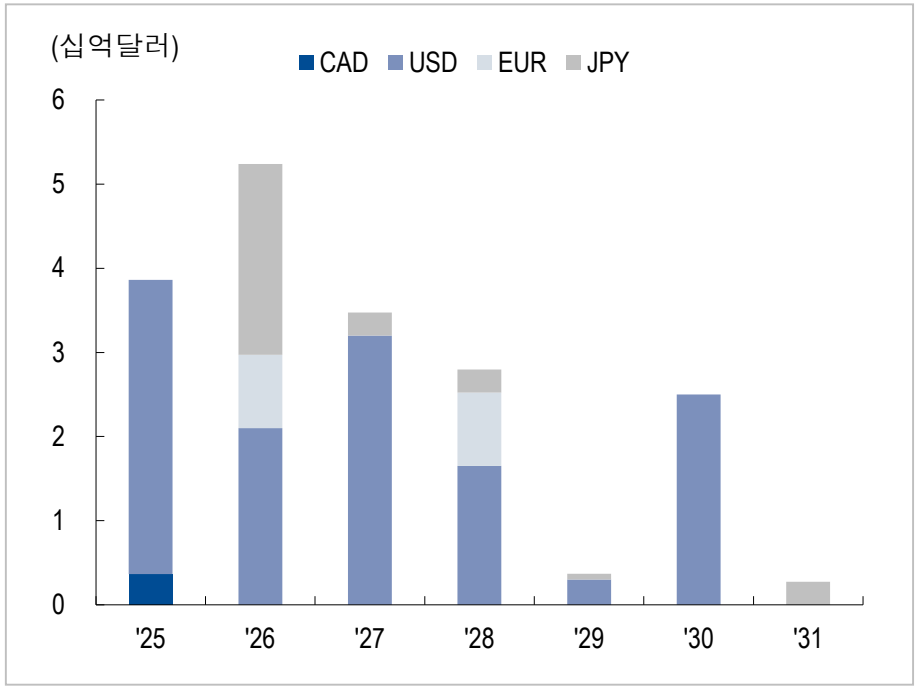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유동성 여건 양호, 만기 도래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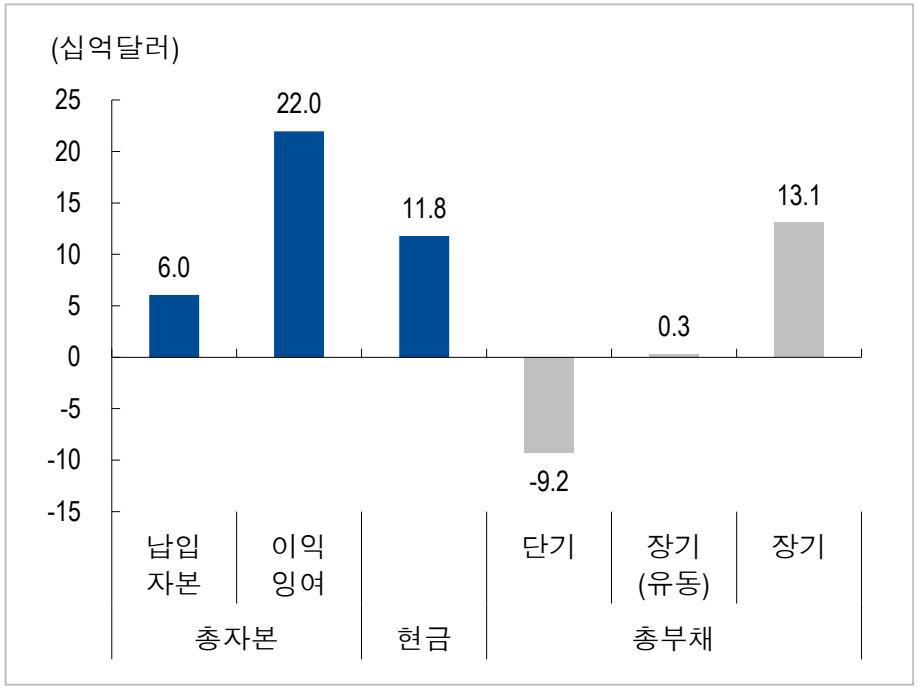
-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엔화기준으로 약 5,700억엔 수준임
- 닛산의 보유 현금 및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은 118억 달러로, 단기 현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보유
- 부진한 수익성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상환보다는 차환이 예상됨
- 회사는 2024년부터 2025년(회계연도 기준) 연간 배당도 철회했음. 구조조정 완료까지 보수적인 재무정책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닛산의 통화별 부채 만기도래액



자료: S&P,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닛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유동성은 충분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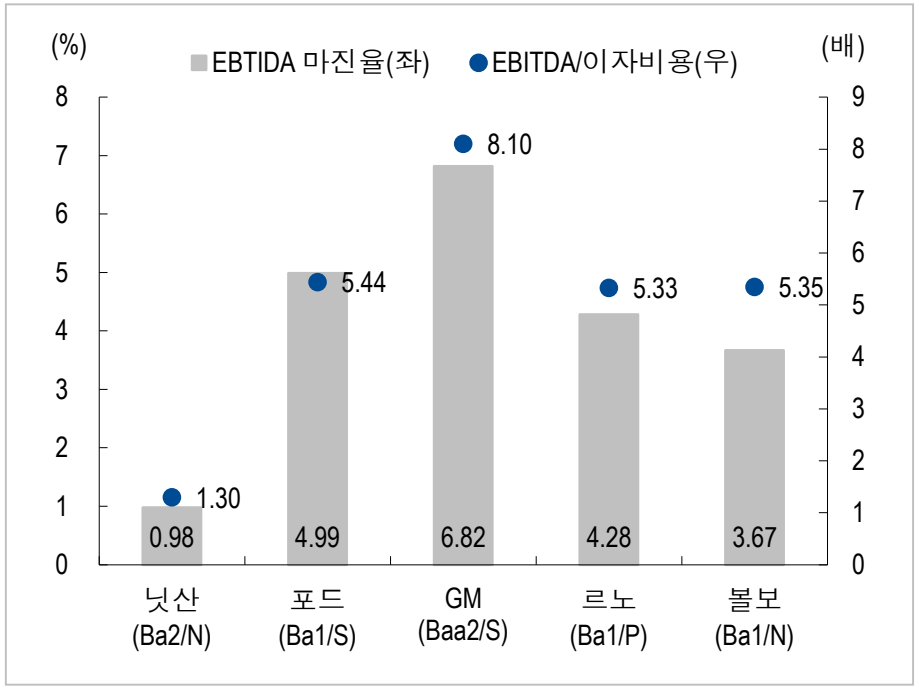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구조조정 완료시 피어그룹 대비 신용 지표도 큰 폭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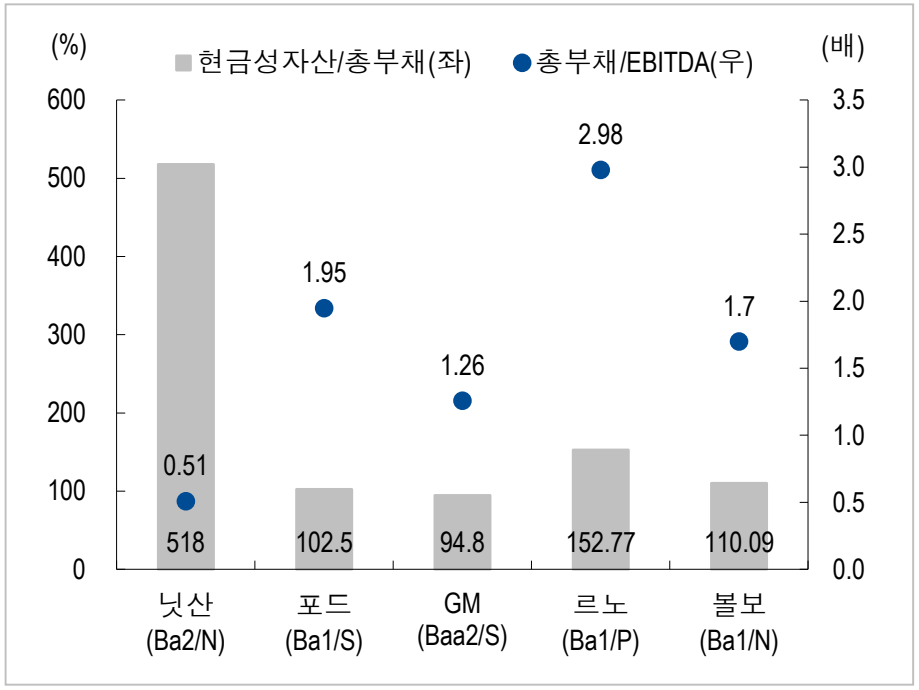
- EBITDA 마진율이 1%를 하회하는 등 수익성 지표 둔화 영향으로 커버리지, 레버리지 등 회사의 주요 신용 지표들도 저하되었음
- 그러나 2026년 기점으로 구조조정 완료 이후 개선폭은 피어그룹 대비 클 것으로 예상. 흑자 전환 성공시 등급 전망은 '안정적' 복귀할 것
- 레버리지 지표가 피어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부 차입금 확대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됨

EBITDA 마진율과 커버리지(EBITDA/이자비용) 피어그룹 비교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풍부한 유동성, 낮은 수익성에도 레버리지 부담 크지 않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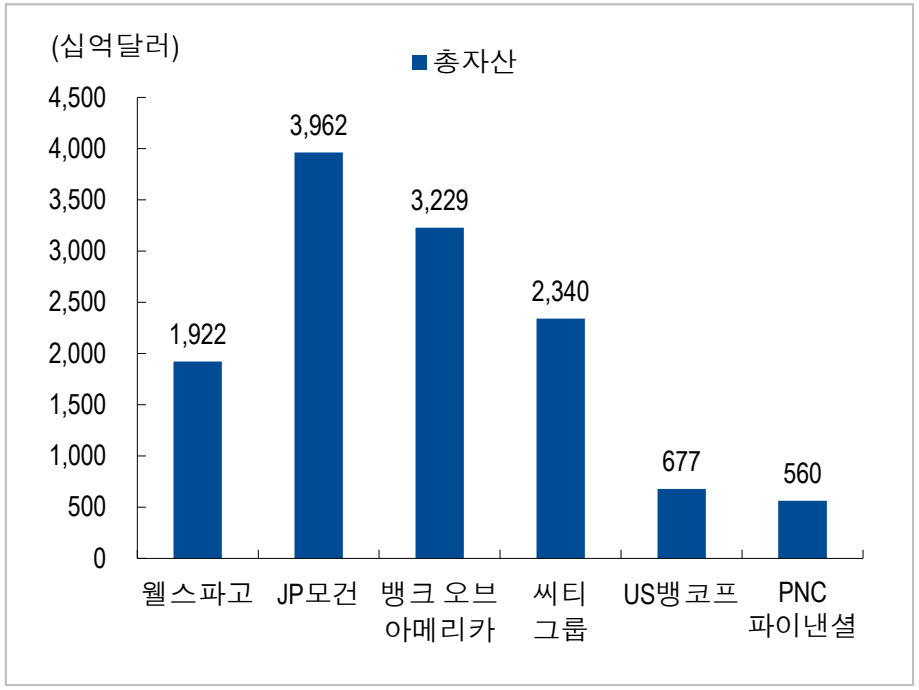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슈(2): 미국 은행산업 규제 완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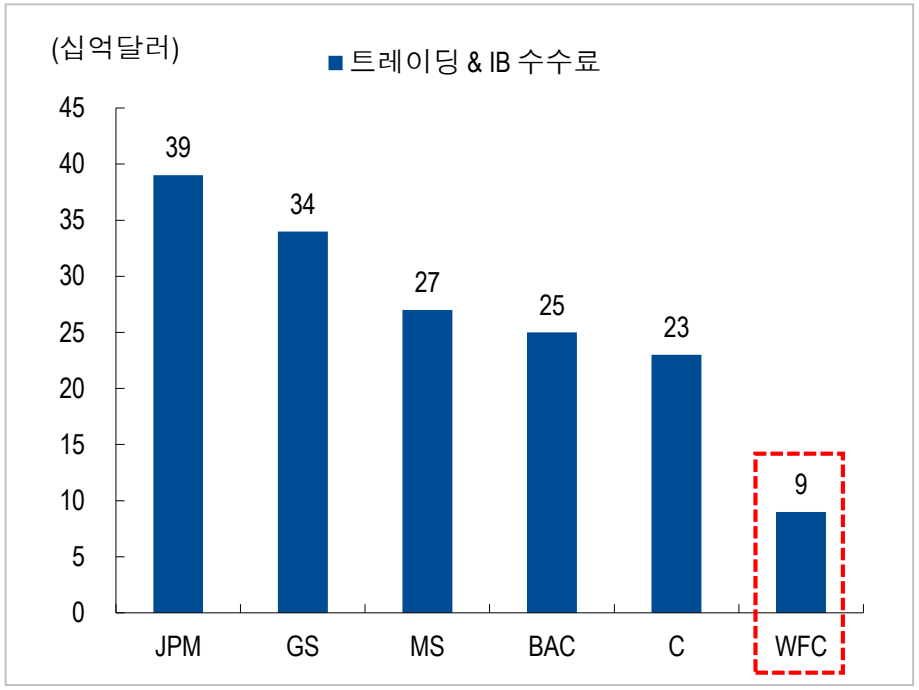
- 6월부터 미국 대형은행들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월초 연준의 웰스파고 자산 상한 해제가 신호탄이라는 판단
- 웰스파고는 유령 계좌 스캔들로 2018년부터 자산 규모 상한 규제를 비롯해 14개 동의 명령을 받아옴
- 연준은 5월 30일부로 은행이 결함을 해결하는데 있어 모든 필수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평가했고, 동의 명령을 7년만에 철회
- 웰스파고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사업 부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올해와 내년까지 피어그룹 대비 빠른 이익 성장이 예상

7년간의 자산 상한으로 피어그룹 대비 작은 웰스파고의 외형



주: 1Q25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6대 대형은행의 트레이딩 및 IB 수수료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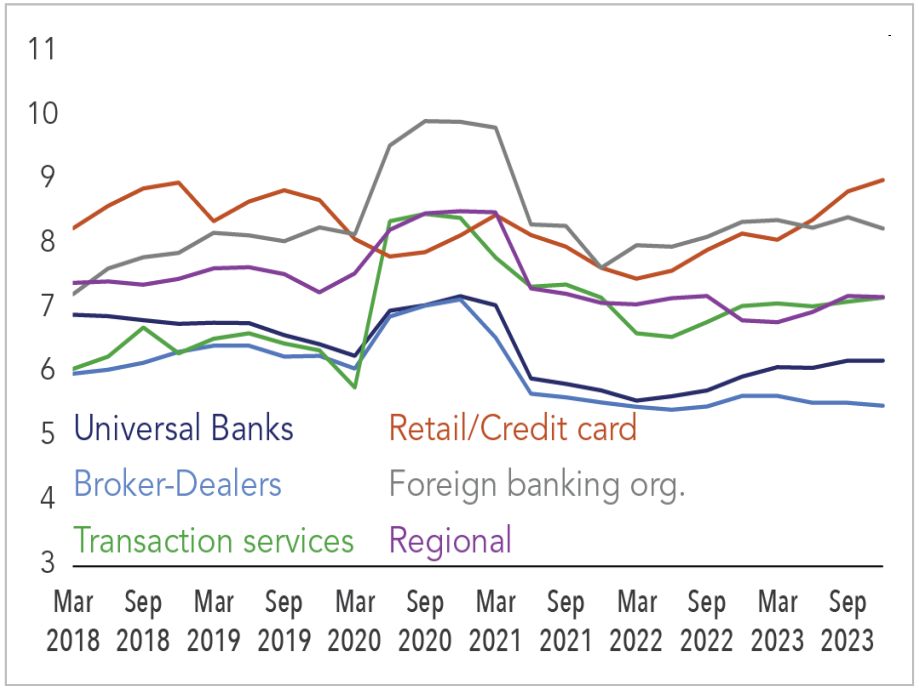


주: 2024년 연간 기준
자료: 각 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

- 연준, FDIC,OCC 등 감독당국은 미국 G-SIB 대형은행지주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배율(SLR)을 기존 5%에서 3.5~4.5%로 완화하는 개정안에도 찬성
- SLR 규제완화의 핵심은 미국 은행들의 국채 보유 확대 유도, 대출 여력 확보에 있음
- 미국 금융 감독 당국은 SLR 비율을 낮추거나, 산정 기준에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대형은행들은 대차대조표에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여유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됨

금융기관 형태별 SLR 비율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LR 규제와 CET1 규제의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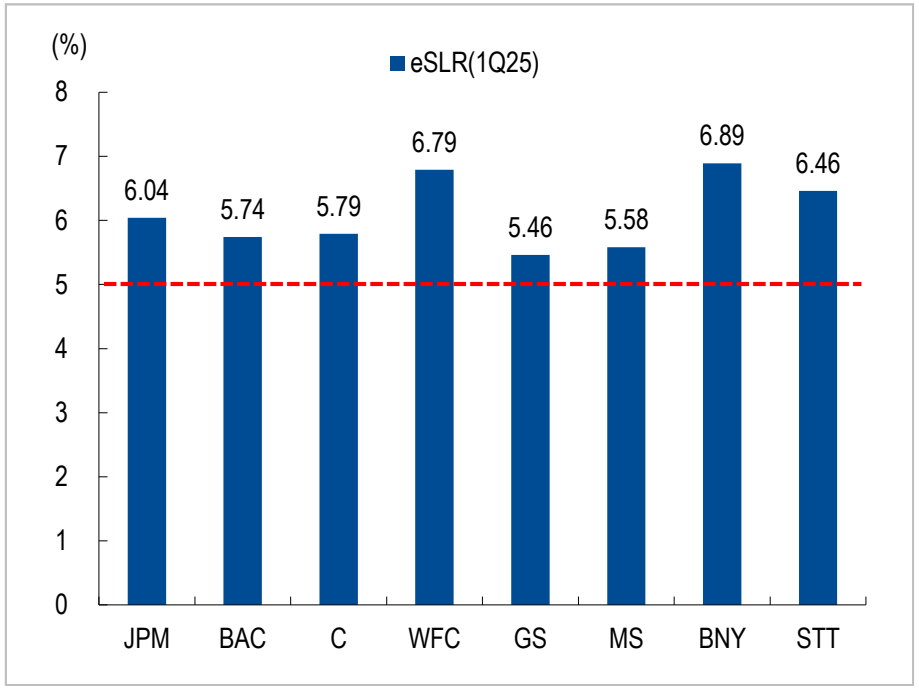
구분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보통주자본비율 (CET1)
산식	Tier1 자본 / 총 익스포저	CET1 자본 /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대상	총 자산(국채 등 저위험, 고위험 모두 포함)	위험가중자산 (자산별 위험도)
목적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	자본의 질적 건전성 확보, 은행 손실
적용방식	자산의 위험도 무관, 전체 자산 기준으로 산정	자산별 위험도를 반영해 위험가중치 적용 후 산정
비율기준	초대형은행 5%, 대형은행 3% 이상	최소 4.5% (Basel III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규제 완화에 따라 자본의 효율적 배치 가능해진 대형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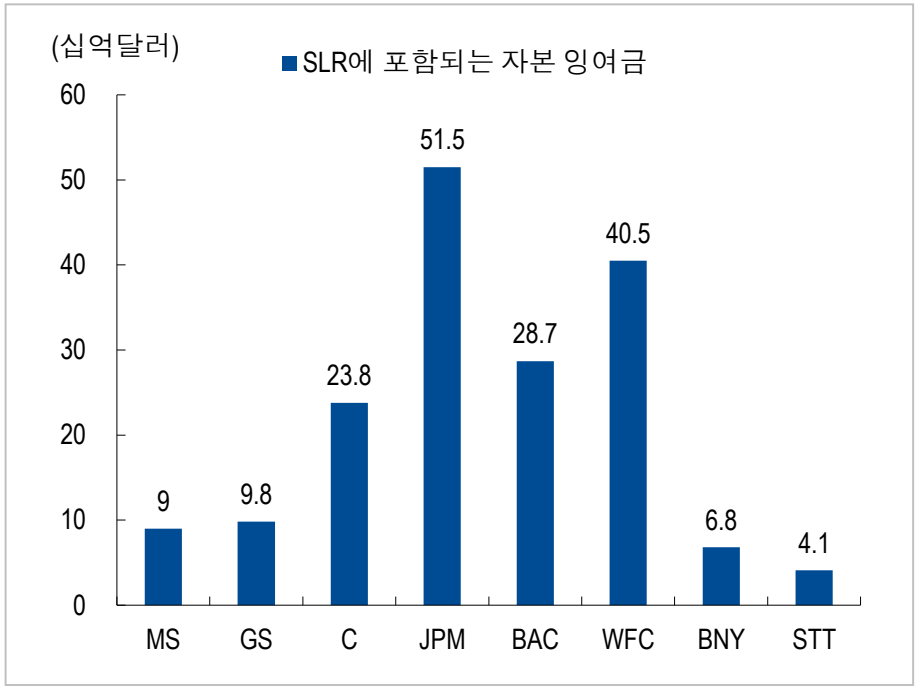
- 규제 완화 영향은 은행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규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자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반면 JP모건이나 웰스파고의 경우 SLR 비율에 대해서 넉넉한 자본 잉여금을 유지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자본을 좀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됨

은행별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현재 미국 대형은행들이 SLR에 투입하고 있는 자본 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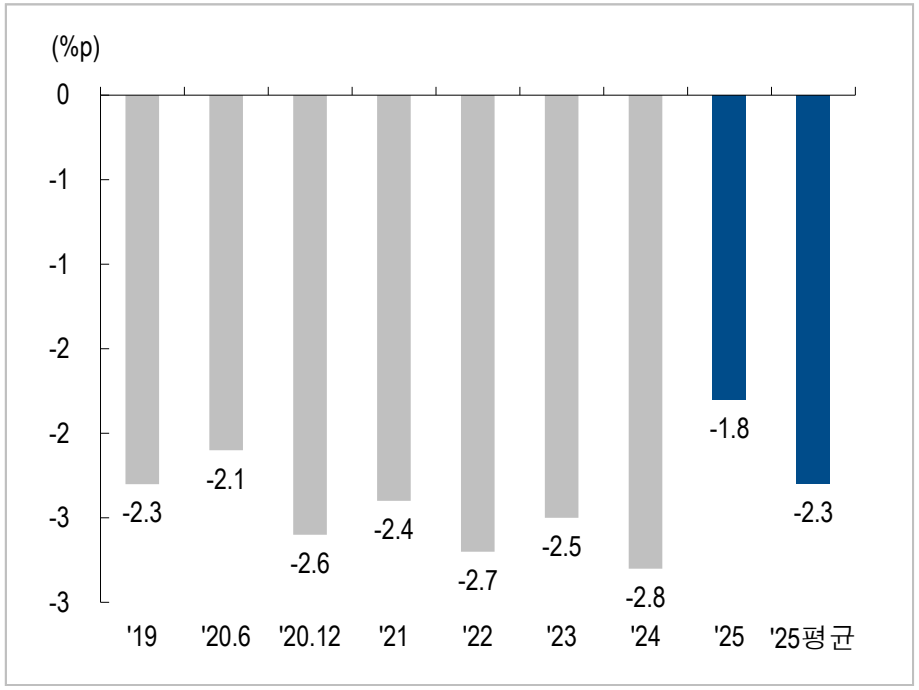


주: Moody's의 추정치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포착된 규제 완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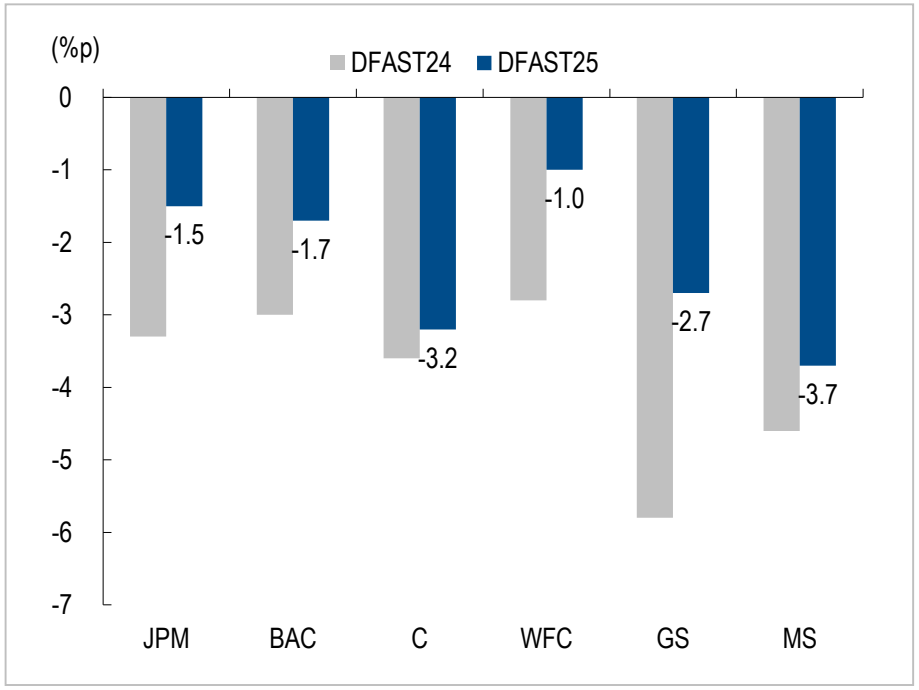
- 월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연준이 자본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움직임들이 확인됨
-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방어하기 테스트 결과를 직전 2개년 평균화하겠다고 발표. 더불어 , 의도치 않은 변수로 인해 은행들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테스트에 사용되는 모델 프레임워크에도 변화가 예고
-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신용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나, 단기적으로는 수익 개선 효과가 더 부각될 전망. 3분기 변동성 장세 예상 속 미국 대형은행 크레딧은 안정적 투자성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선호 의견 유지**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극심한 침체 환경에서 CET1 감소율



자료: Federal Reserv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4년과 '25년 스트레스 테스트 비교: 은행별 CET1 비율 감소폭



자료: Federal Reserv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강등)위기를 (매수)기회로

IV. Appendix

부도율: 글로벌 하이일드 부도율, 연초 반등 이후 다시 하향 안정화

- 25년 5월말 기준 글로벌 하이일드 기업들의 부도율은 4.28%. 미국 하이일드는 5.76%, 유럽 하이일드 2.19% 기록
- 글로벌 하이일드 부도율은 작년 11월 이후부터 다소 완만한 수준의 속도로 하향 안정화 추세
- Moody's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글로벌 및 미국 하이일드 부도율은 각각 3.55%, 4.09%, 유럽은 2.98% 수준 기록할 전망

글로벌 하이일드 기업 부도율 및 전망

주: 2025년 5월말 기준, 과거 부도율 평균은 2004년 이후 평균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하이일드 기업 부도율 및 전망

주: 2025년 5월말 기준, 과거 부도율 평균은 2004년 이후 평균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유럽 하이일드 기업 부도율 및 전망

주: 2025년 5월말 기준, 과거 부도율 평균은 2004년 이후 평균
자료: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참고] 글로벌 수익률(YTM) 및 스프레드 변동

	스프레드(bp)	MTD(bp)	YTD(bp)	금리(%)	MTD(bp)	YTD(bp)
미국 SOFR 3M	-	-	-	4.39	4.0	-10.0
미국 국채(3y)	-	-	-	3.72	-17.8	-52.2
미국 국채(10y)	-	-	-	4.23	-17.2	-34.1
미국 투자등급	83.2	-4.9	3.2	4.99	-22.2	-33.9
미국 하이일드	289.8	-24.8	3.0	7.06	-39.8	-42.6
유럽 EURIBOR 3M	-	-	-	1.94	-5.6	-77.5
독일 국채(3y)	-	-	-	1.86	8.5	-22.0
독일 국채(10y)	-	-	-	2.61	10.7	24.0
유럽 투자등급	91.9	-8.0	-10.0	3.07	0.1	-8.6
유럽 하이일드	320.9	-12.9	3.2	5.92	-11.3	-11.0
신흥국 달러채	236.8	-6.1	23.4	6.43	-22.7	-19.2

주: 6월 30일 기준, MTD는 5월 31일 대비, YTD는 2024년말 대비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참고] 주요 해외기업 신용등급 변동

구분	기업	변경일자	직전등급	직전전망	현재등급	현재전망	신용평가사
전망상향	Cboe Global Markets, Inc.	6.3	A3	Positive	A3	R Upgrade	Moody's
전망상향	Chart Industries, Inc.	6.3	Ba3	Positive	Ba3	R Upgrade	Moody's
전망하향	Toyota Industries Corporation	6.3	A2	Positive	A2	R Downgrade	Moody's
전망상향	Wells Fargo & Co	6.6	BBB+	Stable	BBB+	Positive	S&P
등급하향	Nissan Motor Co.	6.6	Ba1	Negative	Ba2	Negative	Moody's
전망하향	Warner Bros. Discovery Inc.	6.9	BB+	Stable	BB+	Watch Neg	S&P
등급상향	Republic Services Inc.	6.12	BBB+	Stable	A-	Stable	S&P
등급상향	Jaguar Land Rover Automotive Plc	6.13	Ba2	Positive	Ba1	Positive	Moody's
전망상향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6.17	Ba3	Stable	Ba3	R Upgrade	Moody's
등급상향	Carpenter Technology Corp.	6.19	BB	Positive	BB+	Stable	S&P
등급하향	LGI Homes, Inc.	6.20	Ba2	Stable	Ba3	Negative	Moody's
등급하향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6.20	A2	Watch Neg	A3	Stable	Moody's
등급상향	Dycom Industries Inc.	6.24	BB	Stable	BB+	Stable	S&P
전망하향	BNK Capital Co., Ltd.	6.24	Baa1	Stable	Baa1	Negative	Moody's
등급상향	Global Net Lease Inc.	6.26	BB	Watch Pos	BB+	Stable	S&P

자료: S&P, Moody'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